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많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공기와 비와 다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하나님은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요 하나님이 보낼 구주도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다른 분이 없어요. **사도행전 4:12절,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여야 돼요. 아멘 이렇게 전하는데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죠.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고린도전서 1:21절에 보면은 이랬어요.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보실 때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들으면 미려하게 보인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미려하게 보여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혹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 미려하게 들릴 수 있겠구나’ 알고 전하세요.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전에 세상의 지혜로운 자에게 감취두셨고 **미려한 자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왜 그런데도 미려한데도 예수님이 우리 구주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계십니다. 하는 이 미려이라는 말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중에서 구원받을 사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세상에서 미려하다는 말은 어리석다. 어린이 이 같다. 순전하다 겸손하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이 들으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가서 처녀가 아들 낳았다 이러면 다 믿어요. 어린이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어린이가 같은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인류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도록 찾기 위해서 사람들 볼 때 미려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려면 누가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전하지 않고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찌 가리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야 믿어집니다. 안 들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들으려면 누가 전해줘야지! 전하려면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보냅니다. **전도해라** 하고 보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이걸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 여러분 전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전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든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30년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굶주려 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어느 정도 전도를 열심히 했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은 제사장이고 제사 마지막에 붓는 게 그 제물 위에 수로를 붓는 게 이게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평생 살면서 핍박할 때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구주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왔다 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전제가 부어지듯이 내가 촛불 하나를 완전히 타듯이 이제 내가 날이 가까워졌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졌다. 바울은 연세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걸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느냐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바울이 믿음의 아빠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기도 하더라도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큰 명령이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도에 대한 명령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과, 가장 엄숙한 명령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먹고 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사람은요. 죽음은 그뿐이다. 아니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죽어 있는 사람들 다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다 심판하는 심판주! 무서운 명령이죠. 내가 이 명령을 꼭 들어야 될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또 다시 나타나실 그분이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히 심판하실 겁니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엄중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엄중한 명령이 복음을 전해라. 왜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내 이웃 중에 복음을 안 듣고 구원을 못 받았다. 지옥 갔다. 그 책임이 얼마나 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러잖아요. 에스겔아 인자야~ 너가 가서 말해라. 악인들에게 말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가 살 것이고, 너도 죄가 없다. 만약 죽어도 그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지만 너는 죄가 없다. 너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멸망했다. 니가 전하지 아니했는데 멸망했다. 그 피를 네게서 받으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안 들으면 먼지를 털고 옵니다. 안 들어도 우리가 전할 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피해가 있든지 없든지,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요.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당시의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그때 노예는 팔고 사고하잖아요. 이 노예라는 놈이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안 잡히려고 최고의 도시 로마로 갔어요. 이러면 안 잡히겠지. 근데 잡혀서 감옥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니깐, 너무 신실하게 믿으니깐 바울이 나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니깐, 주인에게 다시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뭐라 하나면 이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라. 믿음 안에서 형제 된 자다. 바울은 감옥에 있더라도 복음 전하고 왕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을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참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 영혼에게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 선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제사가 원지 가르쳐주고 그거 귀신에게 하는 거다. 라고 가르쳐주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복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복 받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귀신 많이 섬기는 사람이거나 나라나 자꾸 저주가 임하는데 이걸 몰라요. 이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때로는 죄에 빠졌을 때 책망도 해야 해요. 경계하며 이 말은, 이것도 책망인데 첫 번째는 워냐 하면 시험 들지 않게 책망하라. 둘째는 시험들 거나 말거나 책망하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보고 독사의 자식들이 하듯이 권하라. 사랑을 가지고 부드럽게 섬기면서 권해라. 다시 말하면 사람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른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복음을 잘 안 받으려고 귀가 가려워지고 개인적인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온다는 것으로 지금 이때 같아요. 지금 스승을 얼마나 많이 두는지~ 스승이 많아요. 많이 두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말씀을 믿고 전도하면서 필요하면 스승도 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스승만 두고 만 자기 중심이 돼서 인간적으로만 잘하려고 이걸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시대가 되면 **누가복음 17:26:30 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사 둘이 롯에 갔는데 롯이 환영을 해요. 천사를 환영하고 집에 모셔요. 그런데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찾아와서 “그놈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적 관계를 맺겠다. 말하면 남자들 성폭행하겠다. 이래요. 롯이 뭐라 하나냐 하면 내게는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이 있다. 이 딸을 주겠다. 이 사람은 내게 온 손님이니깐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아 여자 싫다. 남자 내놔라. 그리고 ‘왜 우리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은 너희가 말하느냐’ 그 말이 뭐예요? 편만하다. 사람들이 동성연애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적 관계를 맺는 걸 하나도 죄의식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데 왜 너 잘못했다고 말하느냐? **그 귀를 가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저질스럽고 무익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시대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믿음이 어떤지,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하지 말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싫어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만 구원이다.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

는 말은 예수 믿어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굿해도 되고, 위술 해도 되고 월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해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구주입니까? 마호메트가 구주입니까? 공자가 구주입니까? 무당이 구주입니까? 구원받을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는 빛 값은 마음으로 한다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로마서 1:13~14 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복음을 먼저 받았으면**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빛 값은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의 빛을 진 나라입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굶주리지 죽었지 고달프지 힘들지 어렵지 물질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다음에 후원도 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고 이렇게 잘 살면 이제 빛을 값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빛 값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사도행전 20: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바울은 30년 동안 달려갈 길 다 달려가.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바울은 그것도 알고 있어. 분명히 면류관이 내게 있다는 걸 알고, 내게 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달려가길 다 달려가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초청 주일, 수요일 초청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한 주간도 교구끼리 셀끼리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전도입니다. 무관심하였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힘을 다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된 한 주간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의 055)386-0091**